

농지 주차장 불법전용...속보이는 무안군

현경면 양화리 1만6000여㎡ 변경 절차 없이 조성 쉬쉬하다 말뚝나자 원상복구 명령...실효성 의문

무안군이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농지를 용도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말뚝을 박고 있다. 무안군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현경면 양화리 일대 스포츠 파크내 주차장과 도로 등 1만6000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무단으로 조성됐다.

지목이 논과 밭으로 스포츠 시설로 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

즉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무안군은 내년 전남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스포츠 파크 일대에 추가로 축구경기장 조성 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확인됐다.

주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법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단일한 행정이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2009년 당시 이 일대에 기업도시조성 계획이 있어 이를

민고 시공했다”고 말했다.

기업도시법 적용을 받게 되면 세부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안군이 기대했던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결국 무산됐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무안군의 권한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전남도는 이미 주차장과 도로로 바뀐 농지를 뒤늦게 소급해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부담만 안게 됐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권한이 있는 무안군 농정과는 올해 초 불법 전용 사실을 확인했으나 쉬쉬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면피용으로 지난 14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미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중인 곳

을 파헤치기도 어려운 데다 내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도 이 시설이 필요한 만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 파크 2차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이 계획에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만 이 방법은 원상회복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용도를 변경하는 편법이어서 적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다”며 감사 등 정확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목포~무안공항 시외버스 연말까지 운행 연장키로

전남도는 24일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6월 말까지 운행하기로 했던 목포~무안국제공항 간 시외버스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도 연장 이유다.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부터 주 6회 운행했으며 애초 이용객 저조 등의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운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베이징과 필리핀 등 국제선의 잇따라 취항과 각종 국제행사로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그동안 항공사 손실 보전, 관광업계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이용료와 항공기 착륙료 면제, 면세점 운영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울 초등학교에 설치한 버 체험포

해남군이 최근 도시학생 농촌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 노천초, 공릉초, 홍익대부속초교에 설치한 체험포. 학생들은 10월 버수확기까지 생생한 현장체험을 하게 된다.

<해남군 제공>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대마산단 108개 기업 투자유치

영광군

민선 5기 마지막 1년을 앞둔 정기호 영광군수(사진)는 24일 “산업의 불모지대에 총력 투자유치로 108개 기업 2조66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며 “농어민 소득 창출, 관광·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교육환경 대폭 개선, 저탄소 녹색 성장 적극 추진 등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 결과 전남도 경관행정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2012년 디자인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매년 감소하기만 했던 인구가 지난 해부터 증가세로 반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의 부채를 180억원에서 80억원 감소시켜 재정건전성을 높였고, 법성포 뉴타운 매입토지 399억원과 인재육성 및 투자유치 기금 199억원을 늘려 유동성 자산으로 총 598억원을 비축해왔다.

정 군수는 먼저 165만1000㎡의 대마산단지투자산업단지를 조성, 준공 전 이미 32개 기업으로부터 4754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378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전남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4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도 이 대마산단의 역할이었다.

찾은 고장 남품비리

한빛원전 대책 과제

해외에까지 수출하는 폐가를 거뒀다.

또 행정예 디자인을 접목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전국 시·군 최초로 도시디자인위원회 세부분회지침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썼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그러나 짧은 유류인력이 극히 부족한 시점에서 대마산단 준공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산갯마을,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의 유지·관리·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건설한 재정운용계획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잦은 고장도 남품비리로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한빛원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정 군수는 “3년 동안 미진한 부분을 남은 1년 동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해남에 온다

경기도 안성에 있던 ‘닭 경제능력검정 연구소’가 해남으로 이전한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255억원을 들여 계곡면 법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닭 경제능력검정 연구

소를 건립한다.

연구소는 검정시설 9동, 교육연수원 1동, 부화시설 1동, 창고 등 부대시설 10여 동 규모다. 교육연수원은 실습형 현장중심교육 수요증가 및 전문

연구교육 시설 필요에 따라 설치됐다. 연간 6000여명의 연수생이 이용한다.

이 연구소는 산란계·육용계 검정, 개발된 종자의 능력 테스트, 친환경적 지형 계사 물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농장경영을 유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북

순창 블루베리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

순창군이 고추장에 이어 순창블루베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24일 “순창군 내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140ha로 전국 1위이며, 청정지역 고랭지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은 만큼 단체표장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 지역특산품인 순창고추장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한 바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

재배면적 전국 1위·청정 고랭지서 생산 당도 높아
생산·제조·가공된 상품 나타내는 ‘단체표장’으로

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며, 상주 꽃감과 이천 쌀 등이 대표적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단체표장 등록은 특색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

권 등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돼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블루베리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순창 블루베리가 지리적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역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발굴조사 보고회

정읍시는 24일 “지난 20일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문화유적 발굴조사 최종보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이장희 원장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다음 달 마무리되는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보관했던 내장산의 응골암·은작암·비래암터

를 확인하는 문화재 조사다.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문화유산 발굴조사는 임진왜란 당시, 멸실의 위험에 처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읍인들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농촌민박 17개 업소 이용시설 점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창군이 농촌민박 17개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이용객들의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군 점검반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민

박 사업자의 거주 여부와 주택면적 230㎡ 초과여부, 신고필증 게시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또 침구류 수량 확보와 민박시설 청결상태, 소화기 보유 상황,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 여부 등 민박사업의 규모와 시설 기준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군, ‘제20회 부안국제식품대전’ 참가

부안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부산백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제20회 부안국제식품대전’에 참가했다.

이번 부안국제식품대전은 식품관련 업체의 수출 및 마케팅 지원은 물론 한·중·일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교류회, 수출전략 세미나 등이 동시

에 열렸다. 부안은 명품 쌀 ‘천년의 숨씨’, 뽕주, 오디와인, 참뽕막걸리, 곰소갯걸, 참뽕맛김, 뽕잎간고등어, 뽕잎차, 누에한, 오디, 뽕잎비타 등 30여 개 품목을 국내·외 바이어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장재용기자 jyj0681@

전북북분자사업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전북북분자식품사업단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에서 개최된 북분자축제 기간 동안 아시아권 해외바이어를 초청 ‘북분자제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도내 고향, 정읍, 순창지역 소재 북분자 가공기업들 중 유망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축제기간 동안 중국, 일본, 몽골 등 3개국 11명의 바이어가 참석하여 북분자주와 기능성음료, 한과, 식초 등을 생산하는 16개 업체와 열린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48건의 상담을 통해 올해에만 미화액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이끌어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민원처리예고제 큰 효과 남원시

남원시는 24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행한 민원처리예고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8234건의 법정 처리일수는 8만2113일이지만 실제 3만1137일 만에 처리해 5만976일(62.7%)을 단축했다.

이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민원을 4일 만에 완결 처리한 셈이며, 이는 전년도 41.7%보다 21% 더 빨리 처리한 수치다. 시는 민원처리예고제 운영 이후 처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늦어지는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사전예고와 독촉을 해 지각처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민원과에서는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다수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책임 담당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고창 명품수박 선발대회

23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린 ‘제1회 고창 명품수박 선발대회’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출품작을 살펴보고 시음하고 있다. 12명이 출품한 이날 대회에선 무

장민 김연호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